'다렌버그 가문의 헤리티지가 담긴 프리미엄 블렌드 와인'

더 올드 블로크 앤 쓰리 영 블론드

The Old Bloke & The Three Young Blondes

지역	호주 〉 남호주 〉 맥라렌 베일		
포도품종	쉬라즈 94% 루싼 4% 비오니에 1% 마르싼 1%		
알코올	1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허브, 구운 비트루트 등도 함께 느껴지며 복합적인 풍미를 자랑하며, 입 안 가득 생동감이 넘치는 풍미와 폭발적인 탄닌감, 긴 피니쉬를 함께 느낄 수 있다. 몇 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와인.		
페어링 TIP	붉은 육류/ 흰 육류/ 익힌 생선/ 익힌 채소/ 치즈/ 훈제, 염장 음식/ 피자, 파스타		

	DRY				SWEET
당도	1	2	3	4	5

	LIGHT				FULL
바디	1	2	3	4	5

제품설명

더 올드 블로크는 쉬라즈를 메인으로 다렌버그가 1990년 맥라렌베일에 식재한 론 화이트 품종인 루싼, 비오니에, 마르싼을 블렌딩한 와인이다. 세 개의 화이트 품종은 다렌버그가 가진 가장 오래된 쉬라즈 고목인 올드 블로크에 향과 향신료의 느낌, 지속되는 피니쉬를 부여한다. 사람들은 종종 올드 블로크를 체스터의 세 개의 영 블론드를 그의 딸들이자 5대째 와이너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하며 이는 라벨에 그려진 네 개의 실루엣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리미엄 와인답게 각 품종들의 완벽하게 블렌딩되어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수상내역

2018빈티지 96점
2018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7점
2017빈티지 제임스 홀리데이 James Halliday 92점

와이너리

다렌버그는 남호주 대표 부띠끄 와이너리로,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쉬라즈 & 비오니에를 블랜딩 하는 파격적인 시도와 스토리를 담은 독특한 제품명 등 호주에서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다렌버그는 남호주 지역 프리미엄 레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맥라렌 베일에 위치해 있으며 1912년 조셉 오스본(Joseph Osborn)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Australia's First Fmailies of Wine (호주 가족 경영 와이너리)의 12개 와이너리 중 하나로 호주 와인 역사를 반영하는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와인 & 스피릿(Wine & Spirit)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100대 와이너리로 총 4회 선정, 디켄터(Decanter) 매거진으로 부터 2017년 올해 방문해야 할 와이너리로 선정되었다. 레이블의 레드 스트라이프가 특징인 프리미엄 와이너리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